

자기 힘으로 발전과 미래를

나라의 진보와 발전, 번영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데서 담보된다. 공화국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와 발전을 이룩하여 나가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자강력에 의거하여 더욱더 강해지고 있으며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의 창조대전을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부강조국건설의 기치로

높이 들었기에 공화국은 모진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용진하고 있다.

공화국이 발전하여 온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력정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강화하는 것이 자강력이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키우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만리도 지척이 된다.

자강력이야말로 창조의 보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생활의 진리로 체득하였다.

자강력을 체질함으로써 공화국인민들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허리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떨치겠다는 신념의 강자가 될 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소동을 정면 돌파전,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무력화시키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발전

과 비약을 이룩하고 있다.

두해전 5월 완공된 교암-담촌철길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자강력제일주의를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끊임없이 펼쳐진 웅대한 설계도들은 그대로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발전하고 비약하는 현실을 펼쳐었다.

새형의 자동차와 트랙터를

를 비롯한 농기계들, 지하전동차, 제도전차, 무궤도전차들 그리고 평양양말공장의 제품들과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생산되는 날염천들과 사즈천들, 평성합성가죽공장과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질 높은 제품들을 비롯하여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자기 힘이 제일이고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때부로 절감케 하고 있다.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시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강력제일주의를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신 그의 정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었다.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훌륭히 변모된 삼지연시와 새로 조업한 대규모의 중평남새농산물공장 양묘장 그리고 최근에 완공된 순천린비료공장과 대규모관개체계인 황해남도물길도 자력자강의 위력이 낳은 재부이고 창조물들이다.

몇해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시련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러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집요하고 끈질기다. 그러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도 자력자강의 굳건한 토대와 발전잠재력을 가진 공화국과 인민을 질식시킬 수도, 굴복시킬 수도 없다.

조선을 다너간 러시아연방 평의회 의장은 조선에 대한 제재처럼 포악무도한 제재를 세계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그 어떤 제재도 이 나라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재미동맹국연합회는 인터넷에 낸 글에서 북은 사상 최악의 집요하고 악랄한 외부적압박과 위협을 이겨내고 세계진보력량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동경하였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키워 발전하려는 각오와 의지이자 자강력의 높이다. 자강력의 높이는 자국의 역의 높이, 번영의 높이이다.

남의 집에 있는 금덩어리보다 자기 집에 있는 쇠덩어리가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귀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은 흥하고 남의 힘을 믿고 남의 것을 넘보는 사람은 망하기 마련이다.

자강력으로 부강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공화국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고 의지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공화국의 발전과 번영의 영원한 기치로 되고 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자강력제일주의의 고귀한 산물

지금으로부터 네해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었다.

기업소에서는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철감생산을 위한 공정을 자체로 구축하고 도입시험에서 단번성공하였으며 민용성이 담보된 질 좋은 철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크릴계철감생산공정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고귀한 산물이라고 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가 잘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고, 자기 힘을 믿고 달려붙으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치는 쌍기둥이라고 하시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세해전 10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우리를 어찌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자립경제의 구조를 완비하고 그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로 되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우리는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오직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하시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매혹과 흠모 한없이 소랄하신분

세계 각국의 많은 인사들 속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에 대한 찬양은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우간다 전국학생운동기판지 《파블리코 렌즈》가 전한 소식이 이목을 끌었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정치무대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정치가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첫째가는 매력은 강과 유를 조화롭게 결합하신것이다. 최근 몇년간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보여주신 자세와 결단은 국제사회에 매우 강한 지도자로 알려지신 그의 기질을 증시해준다. 그러나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강하신것만큼 매우 부드럽고 인문분이다.

많은 인사들로부터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시지만 틀을 차리지 않는 격식에 매이 없이 매우 소박하고 소랄하신분이다. 인민을 찾아 끊임없이 가고가시는 그의 현지지도의 길에는 언제나 수수한 평민의 모습으로 인민들과 가장 친근하게 어울리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빛나고있다.

주제101(2012)년 5월 1일 노동자들의 문화후생기지로 번듯하게 일떠선 강성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2층에 꾸러진 리발실에도 들리시었다.

평양에 올라가서 전승을 받고왔다는 리발사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이께서는 그러면 나도 공장들에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리발을 해도 일없겠는가고 허물없이 물으시었다.

치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병원놀이를 하고있는 《포마의사》앞으로 매를 올리시며 어디가 아픈지 하나도 한번 질책해 주렵 하고 다정히 물어주기도 하시었다.

머나먼 섬초소를 찾으시어서도 병사들을 뜨겁게 안아 주시고 허물없이 어깨를 짚고 팔을 끼고 기념사진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노동자들과 그리고 잘 어울리시고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들은 물론 로인들과 철부지아이들이에 이르기까지 구면지기처럼 순간에 친숙해지시는 그이이시이다.

그 어디를 가나 평범한 인민들과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어울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랄성!

과연 무엇이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토록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을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기 전에 인민의 아들, 인민의 총부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없이 소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시였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그 이름에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심장의 목소리처럼 마음속 진정을 터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른다. 아이들은 《아버지원수님》, 어른들은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르고 이른바침 신문을 펼쳐보면 《오늘 신문에 우리 원수님소식이 실렸군.》, 체육인들이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는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우리 원수님, 친근한 이 부름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할 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정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의 정이 숨배여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었다.

그때로부터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이 더욱 깊어졌다.

우리 원수님, 누구나 이 부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있다.

친근한 이 부름은 평도에서 으뜸이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에서 그 끝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매혹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친근한 부름

어 새 힘을 얻군 한다. 자식들이 기쁜 일이 생겨도 피로움이 있어도 먼저 어머니를 찾듯이 인민은 기쁜 때 도 힘겨울 때 도 언제나

우리 원수님, 이 부름과 함께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기둥이 세워졌고 절대적으로 따르며 받드는 열화같은 신의의 세계가 간직되어있다.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 스스로가 최고령도자를 우리 리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다.

친근한 이 부름은 평도에서 으뜸이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에서 그 끝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매혹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고

세계 각국의 많은 인사들 속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에 대한 찬양은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우간다 전국학생운동기판지 《파블리코 렌즈》가 전한 소식이 이목을 끌었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정치무대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정치가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첫째가는 매력은 강과 유를 조화롭게 결합하신것이다. 최근 몇년간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보여주신 자세와 결단은 국제사회에 매우 강한 지도자로 알려지신 그의 기질을 증시해준다. 그러나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강하신것만큼 매우 부드럽고 인문분이다.

많은 인사들로부터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시지만 틀을 차리지 않는 격식에 매이 없이 매우 소박하고 소랄하신분이다. 인민을 찾아 끊임없이 가고가시는 그의 현지지도의 길에는 언제나 수수한 평민의 모습으로 인민들과 가장 친근하게 어울리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빛나고있다.

주제101(2012)년 5월 1일 노동자들의 문화후생기지로 번듯하게 일떠선 강성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2층에 꾸러진 리발실에도 들리시었다.

평양에 올라가서 전승을 받고왔다는 리발사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이께서는 그러면 나도 공장들에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리발을 해도 일없겠는가고 허물없이 물으시었다.

그 어디를 가나 평범한 인민들과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어울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랄성!

과연 무엇이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토록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을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기 전에 인민의 아들, 인민의 총부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없이 소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시였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그 이름에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심장의 목소리처럼 마음속 진정을 터치고있다.

치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병원놀이를 하고있는 《포마의사》앞으로 매를 올리시며 어디가 아픈지 하나도 한번 질책해 주렵 하고 다정히 물어주기도 하시었다.

머나먼 섬초소를 찾으시어서도 병사들을 뜨겁게 안아 주시고 허물없이 어깨를 짚고 팔을 끼고 기념사진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노동자들과 그리고 잘 어울리시고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들은 물론 로인들과 철부지아이들이에 이르기까지 구면지기처럼 순간에 친숙해지시는 그이이시이다.

그 어디를 가나 평범한 인민들과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어울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랄성!

과연 무엇이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토록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을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기 전에 인민의 아들, 인민의 총부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없이 소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시였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그 이름에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심장의 목소리처럼 마음속 진정을 터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른다. 아이들은 《아버지원수님》, 어른들은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르고 이른바침 신문을 펼쳐보면 《오늘 신문에 우리 원수님소식이 실렸군.》, 체육인들이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는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우리 원수님, 친근한 이 부름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할 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정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의 정이 숨배여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었다.

그때로부터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이 더욱 깊어졌다.

우리 원수님, 누구나 이 부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있다.

친근한 이 부름은 평도에서 으뜸이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에서 그 끝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매혹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어 새 힘을 얻군 한다. 자식들이 기쁜 일이 생겨도 피로움이 있어도 먼저 어머니를 찾듯이 인민은 기쁜 때 도 힘겨울 때 도 언제나

우리 원수님, 이 부름과 함께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기둥이 세워졌고 절대적으로 따르며 받드는 열화같은 신의의 세계가 간직되어있다.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 스스로가 최고령도자를 우리 리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다.

친근한 이 부름은 평도에서 으뜸이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에서 그 끝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매혹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방침, 공동사방침을 제시하시고 농장길을 걷고걸으며 애민헌신의 로고를 바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치신 황금벌의 력사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즐거우게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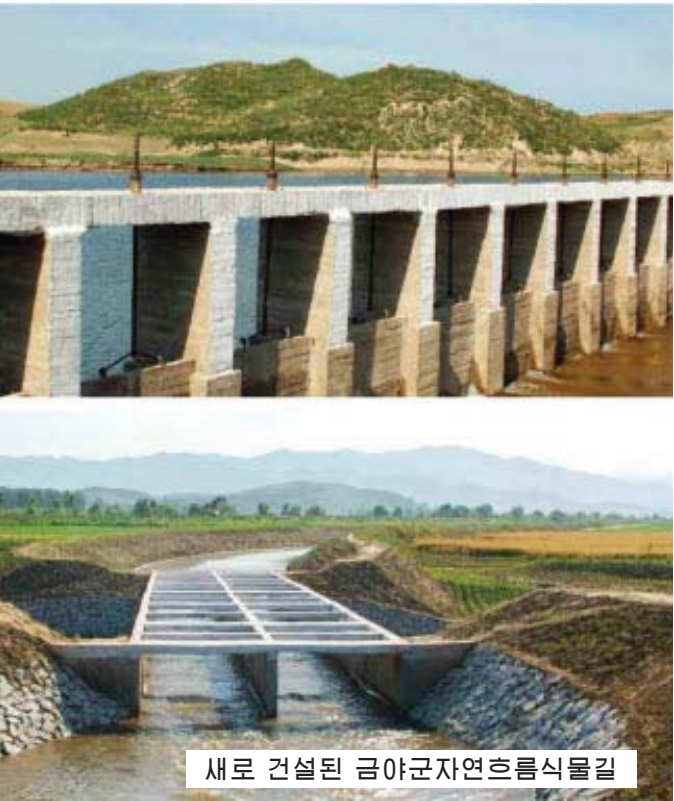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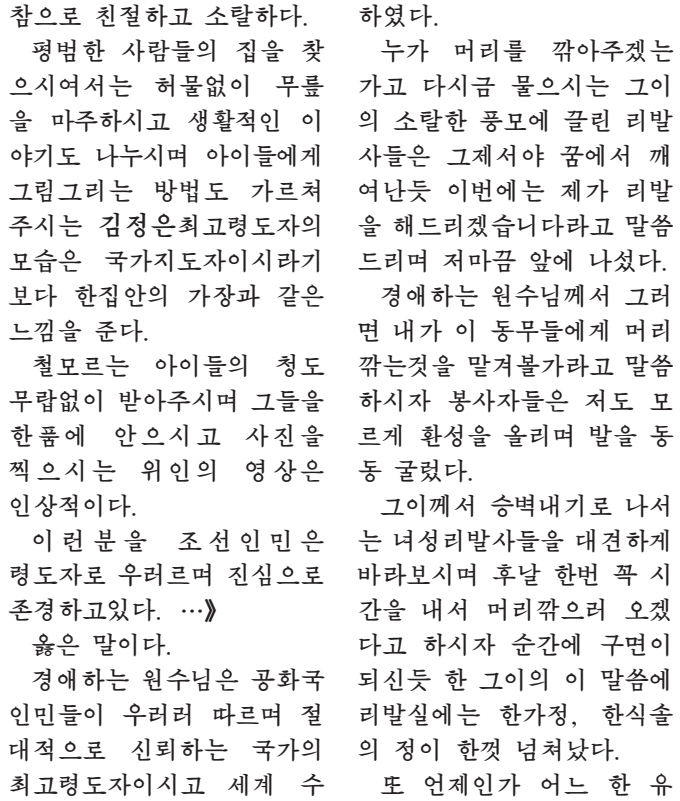
지금 공화국의 앞길에는 농업발전의 넓은 길이 펼쳐지고있다.

지난해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한 공화국은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전국의 농장들마다에서 과학농사, 다수확농, 사회주의농장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공화국 각지에서 경지면적을 높이기 위한 새땅찾기사업이 전국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최근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의 완공과 황해남도 물길공사, 철수 등 농업생산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쌀로써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나가는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하여는 나라 인민의 드높은 열의는 오품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재령군 봉천협동농장에서

새로 건설된 금야군자연흐름물길

재령군 봉천협동농장에서

새로 건설된 금야군자연흐름물길